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 강해』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와 기독교 사회주의 비교 연구

한규승*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에서 채택된 사회적 책임을 지닌 그리스도인
- IV.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 강해』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통해서 본 사회적 책임을 지닌 그리스도인
- V. 기독교 사회주의의 고찰-19세기 영국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 VI. 존 스토트의 '새로운 사회'와 기독교 사회주의의 연관성
- VII. 결론

I. 서론

복음주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개인 구원의 복음 선포와 그에 대한 강조에 비해 사회구원과 이 세계 속으로 전진해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활동의 결여이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어느 누구도 개인화된 복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강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만드신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설파한다. 그 새로운 사회의 특징들은 “죽음 대신 생명, 분열과 소외 대신 연합과 화해, 악한 부패 대신 건전한 의의 기준, 미움과 다툼 대신 사랑과 평화, 무기력한 악과의 타협 대신 악과의 간단없는 투쟁”이다.¹⁾ 한마디로 말해서 존 스토틀에 의하면, 에베소서는 “새로운 인류”, “새 창조”,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적 구원이나 내세 지향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현세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책임 있는 신자로서 살아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존 스토틀의 이러한 사교의 변화를 이 짧은 논문을 통해서 추적하고자 한다. 그 변화와 함께 그 내용들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와 비교함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존 스토틀은 에베소서 강해와 더불어 이러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에베소서 강해 서문을 보면, 그는 “지난 오 년 이상 나는 에베소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메시지에 깊이 몰두하고, 그것이 주는 충격을 느끼며, 그 안에 담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강해 집이 1979년에 출판 되었으니, 적어도 1974년부터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4년은 복음주의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라 말할 수 있다. 이 해는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열렸던 것이다. 주최 측은 존 스토틀을 의장으로 세우고 로잔 언약

1) 존 스토틀, 『에베소서 강해』(정옥배 옮김), IVP, 2007, 10.

입안 위원회를 꾸렸다.²⁾ 이 결과물이 바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이다.³⁾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스토티의 이러한 생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1958년 빌리 그레이엄이 존 스토티와 몇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 시작된 것이다.⁴⁾ 그러므로 존 스토티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활동의 첫 번째 결과물이 로잔언약이고, 그 다음은 『에베소서 강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다루고자 하는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또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⁵⁾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1984년에 초판 되어 2006년까지 계속해서 개정되었다는 것이다.⁶⁾ 그렇다면 이 저술을 통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빌리 그레이엄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이미 4판 개정까지 이루어진 때였다. 이런 까닭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로잔언약의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 『에베소서 강해』와 『현대

2) 로저 스티어, 『존 스토티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247쪽.

3) 손동식, “복음주의의 사도, 존 스토티의 삶과 설교 세계,” 『목회와 신학』, 2011, 09, 111쪽. 손동식은 로잔언약서를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4) 로저 스티어, 『존 스토티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244쪽.

5) 존 스토티,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정옥배 옮김), IVP, 2011, 17쪽. 존은 초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1978-1979년에 당시 울소울즈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마이클 보겐이 “오늘날 영국이 직면한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시리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라는 책이 시작되었다고 존은 말하기 때문이다.

6) 2006년의 마지막 교정은 존 스토티가 아니라 로이 맥클러리가 했지만, 여전히 존 스토티의 책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존은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은 존이 모든 사역에서 은퇴하기 일 년 전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1958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고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저작들 중심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독교 사회주의, 특히 러들로우(Ludlow)와 킹슬리(Charles Kingsley)에 의해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사회주의,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제 3의 길로 여겨지는 기독교 사회주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⁷⁾

III.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⁸⁾에서 채택된 사회적 책임을 지닌 그리스도인

로잔언약은 사회참여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명료하게 천명한 것이다. 존 스토틀은 흑시스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로잔언약에 대한 해설을 썼다. 그는 그곳에서 과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있던 것에 반해, 20세기 복음주의 자들은 ‘사회 복음’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와 복음전도를 분리해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⁹⁾

1958년 빌리 그레이엄이 존 스토틀과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로잔대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여서 복음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첫 번째 모임은 1966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대회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계 대회들이 열렸다. 빌리 그레이엄 복음전도협회가 이 대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다.

두 번째 모임은 1970년 1월에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담긴 의미”를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7)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홍성사, 2011, 61쪽.

8) <http://www.esa-online.org/about/lausanne.html>. 로잔 언약의 모든 내용은 이곳에서 다운받았다.

9) 로저 스티어, 『존 스토틀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250쪽.

절감했다.¹⁰⁾

로잔언약이 체결된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라는 이름으로 1974년 7월 16일에 시작된 것으로, 150개국에서 2,500명이 참석했으며 참관인, 컨설턴트, 초청 손님, 언론인 등 1,300명이 참관했다.¹¹⁾ 모임 장소는 스위스의 제네바 호수 북쪽 연안에 위치한 로잔이었다. 연단 위에는 “온 세상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자”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 문제로 로잔 대회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연단에 선 존 스토트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올바르게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모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¹²⁾

이 대회의 주최 측은 존 스토트를 의장으로 세우고 로잔언약 입안 위원회를 꾸렸다. 스토트는 이를 밤을 꼬박 새며 모든 자료를 정리 검토하여 로잔언약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레이튼 포드는 로잔언약의 최종안을 “기독교 신앙과 관심사, 헌신에 대한 세기의 모범적 선언”이라고 묘사했다.¹³⁾

대회를 마감하면서 대회 의장을 맡은 잭 다인과 빌리 그레이엄은 로잔언약에 직접 서명을 했다. 그리고 2,400명 참석자 중 2,000명도 카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나머지 400명은 로잔 언약의 아홉 번째 단락에 의구심을 품고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¹⁴⁾ 반대자들 중 빌리 그레이엄의 부인 루

10) 위의 책, 244쪽.

11) 위의 책, 245쪽.

12) 로저 스티어, 『존 스토트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246-247쪽.

13) 위의 책, 248쪽.

14) 9항에서 특히 다음 부분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All of us are shocked by the poverty of millions and disturbed by the injustices which cause it. Those of us who live

스 그레이엄도 포함되어 있었다.

로잔 대회는 주류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존 스토트의 생애』저자인 로저 스티어는 이러한 시작의 변화는 기독교 교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로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교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 네 가지 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의 근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온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분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심판 날 그분 앞에서 해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폭넓은 관심사를 공유해야 마땅하다.”¹⁵⁾ 이만열도 “사회참여에 관련한 이념과 행동강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¹⁶⁾

그렇다면 먼저 로잔 언약의 5항, 6항, 9항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5항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이 항목은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임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전 인간 사회에 걸쳐 정의와 화해에 대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압제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야 함을 천명한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서 이끌어낸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교리에서 이끌어낸 책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족, 종교, 피부색, 계층, 성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타고난 존엄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in affluent circumstances accept our duty to develop a simple life-style in order to contribute more generously to both relief and evangelism.” 루스 그레이엄은 이 구절에서도 “a simple life-style”에 대해 존 스토트에게 따져 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5) 로저 스티어, 『존 스토트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250-251쪽.

16) 이만열, “존 스토트에게 진 빛.” 『복음과 상황』, 2011, 09. No. 251, 16쪽.

인종차별에 대한 모든 근거들이나 이유들을 제거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 참회하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과 때때로 전도(evangelism)와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참회한다. 그리고 5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닐지라도, 사회적 활동이 전도가 아닐지라도, 정치적 해방이 구원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단언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 교리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필수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이다.¹⁷⁾

위의 내용 중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에서 “사회-정치적 참여”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찾는다면, 먼저는 “인간과의 화해”이고, “사회적인 활동”이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해방”일 것이다.¹⁸⁾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구원 메시지가 내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

17) (원문) Although reconciliation with humanity is not reconciliation with God, nor is social action evangelism, nor is political liberation salvation, nevertheless we affirm that evangelism and socio-political involvement are both part of our Christian duty. For both are necessary expressions of our doctrines of God and humanity, our love for our neighbor and our obedience to Jesus Christ.

18) 레아나르도 보프,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김수복 옮김, 분도출판사, 1993, 111 쪽, 보프가 말한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들린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된 초기의 복음화는 예속의 표지 아래(예속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식민지화된 그리스도교, 서구의 종교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리스도교를 태동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복음화는 해방의 표지 아래(해방을 가져다주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주민, 흑인, 혼혈인, 백인, 라틴인의 특징을 고루 갖춘 라틴아메리카의 전형적인 그리스도교를 생겨나게 하고 있으며, 교회 구조를 쇠신시키고 있다.”

것은 소외(alienation), 압제(oppression), 인종차별(discrimination)의 온갖 형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우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불의한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righteousness)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힘써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됨을 지적한다.

5항은 구원의 변혁하는 힘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책임들에서”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메시지인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로 끝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들도 포함한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로잔 언약의 이 내용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다른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존 스토틀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불필요가 있다. 로잔 언약의 내용에서 시작하여, 그의 『에베소서 강해』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평가해야 그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로잔 언약의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이만열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리고 있다. “로잔 언약은 사회참여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명료하게 천명한 것이다. 때문에 로잔 언약 중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담은 내용은 당시 사회참여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한국의 복음주의권의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의 격려가 되

19) 김회권, “존 스토틀, 하용조, 복음주의의 미래,” 『복음과 상황』, 2011, 9, No. 251, 25쪽.

었고 종래까지의 사회문제를 대하던 인식과 행동의 방향 전환을 획기적으로 가능하게 했다.”²⁰⁾

6항은 “교회와 전도”(The Church and Evangelism)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6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의 계토에서 나와서 비기독교적인 사회로 스며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전도가 우선적임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고, 복음을 전파하기로 정해진 수단이며, 십자가를 전할지라도, 복음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대한 참된 사랑, 또는 홍보 활동과 제정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서 세심한 정직을 결여할 때는, 오히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의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지 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떤 특정한 문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시스템, 또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함을 역설한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교회가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 즉 교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참된 사랑과 세심한 정직성을 결여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9항의 제목은 “복음 전도 임무의 긴급성”(The Urgency of the Evangelistic Task)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

20) 이만열, “존 스토트에게 진 빚.” 『복음과 상황』, 2011, 09. No. 251, 16-17쪽.

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잔 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서명할 수 없게 만들었던 문제의 내용이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 사람들의 가난에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초래하는 불의한 행동들로 인해 평점 심을 잃게 되었다. 우리들 중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호품과 복음전도에 더 풍성하게 공헌하기 위해 단순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킬 우리들의 의무를 받아들인다.²¹⁾

루스 그레이엄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존 스토트는 이 문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²²⁾ 이 문장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공허하며 생색만 내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존 스토트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끌어낼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로잔 언약을 발표한 후 8년이 지난 후에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검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그 회의 결과 “검소한 생활 방식에 대한 복음주의의 현실”(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Simple Life-style)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존 스토트는 이 문서의 제 5 단락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볼 만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그것은 “개인의 생활, 의복, 주택, 여행, 교회 건물에서 낭비를 중단하고 사치를 반대하기로” 하는 일반적인 결의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심결에 소극적 금욕주의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로널드 사이더(Ronald Sider)박사의 “복음 전도와 정의를 위해

21) (원문) All of us are shocked by the poverty of millions and disturbed by the injustices which cause it. Those of us who live in affluent circumstances accept our duty to develop a simple life-style in order to contribute more generously to both relief and evangelism.

22) 로저 스티어, 『존 스토트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250쪽.

더 검소하게 살기”라는 글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구분을 채택한다. “우리는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창의적인 취미와 공허한 지위의 상징, 소박함과 허영, 특별한 축전과 통상적인 관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종이 되는 것을 구별할 것을 받아들인다.” 요점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소한 삶은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생활, 즉 값을 치를 여유가 없는 것을 구입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중략- 하나님이, 우리가 검소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게 하시고, 더 관대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도록 도우시기를!²³⁾

위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존 스토트가 목회 초기부터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의 결실이 바로 로잔 언약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에베소서 강해』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확장되거나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작품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잔 언약은 반드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 강해』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나오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 그리스도인

1. 『에베소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부 “새로운 사회”, 제 3부 “새로운 기준”, 그리고 제4부 “새로운 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에베소서 2장부터 6장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내용 전

23) 존 스토트,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정옥배 옮김). IVP, 2011, 361-363쪽.

체를 다루는 것은 이 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기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의 제3부 “사회”만을 이 논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존 스토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부제목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God's new society)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2장 1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이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 새로운 사회(2:11-3:21)

존 스토트는 이 장에 대한 설명을 칼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으로 시작한다.²⁴⁾ 마르크스에게 “소외”는 경제적인 차원의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소외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만연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보다 먼저 소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정치적 소외나 경제적 소외보다 철저한 것으로, 하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다른 하나는 “같은 피조물로부터의 소외”다.

이러한 소외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²⁵⁾과 4장

24) 칼 마르크스, 『자본론』, I (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8, 775.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는 언제나 그가 생산과정으로 들어갈 때와 같은 모습-즉 부의 인적 원천이기는 하지만 이 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모든 수단을 박탈당한 모습-으로 그 과정에서 나온다. 생산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자 자신의 노동은 그의 노동력의 판매에 의해 이미 자신으로부터 소외(alienated)되었고, 자본가에 의해 취득되어 자본에 합체되었기 때문에, 그의 노동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타인의 생산물에 대상화되는 것이다.”; 조셉 추나라,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차승일 옮김), 책갈피, 2010, 77-82쪽.

18절²⁶⁾이다. 이에 해당 단어는 ‘아팔로트리오오’(appalottrioo)이다. 이 이중적인 소외가 “화목”으로 바뀌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주제라고 존 스토트는 지적한다. 2장 11-22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소외된 인류에 대한 묘사”(11-12절)이다. 둘째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13-18절)이다. 15절에 나오는 “카이논 안트로폰”²⁷⁾에 대해 존 스토트는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인류”라고 설명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묘사”(19-22절)이다. 새로운 유대인-이방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한다.

결론적으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새로운 사회의 특징은 “소외”가 아니라 “화해”이며,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스토트는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피부색의 담”, “인종 차별의 담”, “교권주의의 담”, “분파주의의 담”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거슬리는 것이다. 현실 교회들이 다시 세운 담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대항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망쳐 버리려 애쓰는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다.

25)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6)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27)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edited. by Babara et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506. 파피루스 46과 Borelianus 대문자 사본(F)과 Boernerianus 대문자 사본(G)은 “카이논”으로 읽지 않고 “코이논 안트로폰”으로 읽는다. 그러면 뜻은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 “공통적인 사람”을 의미가 된다. 그러나 K(8세기나 10세기의 키프리우스 사본)는 “카이 모논 안트로폰”으로 읽어서, 그 의미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것, 즉 하나의 새로운 인류, 인간 공동체의 본보기,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를 사랑하는 화목한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족,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하시는 곳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고 존 스토트는 덧붙이고 있다.

2) 그리스도의 신비(3:1-13; 5:32)

먼저 존 스토트는 신비나 비밀(mysterion)의 의미를 설명한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더 이상 밀착 호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비밀은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며, 그래서 이제는 전체 교회에 속하게 된 진리다.” 그렇다면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및 그의 하나 된 유대인-이방인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들 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서로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서로와의 연합이라는 이중적 연합”이다. 6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과 복음을 동일시한다.

존 스토트는 3장 전반부의 주요 교훈은 바로 교회라고 말한다. 바로 이 교회가 역사 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인 것이다. 3장에 근거해서 볼 때, “온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삶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이 지점에서 스토트는 다시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라면, 또한 분명히 우리 삶의 중심이기도 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준들에 대해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권고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

구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늘 간직한다면, 교회의 예배가 좀 더 진정한 것이 되고, 그 교제가 좀 더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이 되며, 더욱 자비심을 갖고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 바울의 기도(3:14-21)

존 스토트는, “바울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의 지식”이라고 말한다. 기도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단어는 “강건함, 사랑, 앎, 충만함”이다. 이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은 “각 족속의 아버지”이다. 신자들은 모두 다 동일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그의 환상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바울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새로운 기준(4:1-5:21) : 하나 됨과 거룩한 삶

에베소서 2-3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웅장한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5장에서는 그 사회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해설에서 권면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직설법)에서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명령법)으로, 교리에서 의무로, 신조들에서 의제로, 마음을 넓히는 신학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함축하는 것”으로 옮겨간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첫째는 “하나 됨”(연합)이고, 둘째는 “순결함”(거룩)이다. 그 하나 됨은 에베소서 4장 1-16절에서 다뤄진다. 교회 연합은 자비, 하나님의 하나 됨, 다양한 은사, 성숙에 달려 있다.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의 설명을 마무리 지으며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황, 혹은 부분적인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총체적 갱신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새로운 사회 상”을 잘 붙잡아야, 그에 걸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은 “거룩한 삶”이나 “정결함”이나 “순결한 삶”이다.(4:17-5:4절) 4장 17절에서 24절은 “새로운 삶의 교리적 기초”를 다루고, 4장 25절부터 5장 4절은 여섯 가지의 “일상적 행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곳에서도 존 스토트의 결론은 동일하다. “좋은 행동은 좋은 교리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때만,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우리의 성품에 마땅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속에서부터 자라날 것이다.”

5) 새로운 관계(5:21-6:9)

이 글에서는, 존 스토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차원 중 가정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즉 가정과 직장과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관계는 유형적인 인간과 관련된 것이다. 소위 “경건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만 강조한다.” 그러나 사도는 “일상생활과 일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명확히 설명한다.”

존 스토트는 “권위와 복종”이라는 부분에서, 묵인함으로써 “몇 가지 형태의 인간 억압을 영속시켰다는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결연한 각오처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해방 운동에 대해 먼저 적극적인 환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서 이 부분에는 “인간이 모든 착취와 억압에서 참으로 해방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언급한다. 오히려 예

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종들의 존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스토트는 지적한다. 심지어 “육체노동의 존엄성”도 예수님에 의해서 확보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모든 인간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우리는 인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 전까지는 복종해야 한다. 그 지점을 넘어가면 ‘시민 불복종’이 우리의 의무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인간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권위는 “폭정”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권위의 성경적 개념”은 “책임”이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평등성”, “보완성”, 그리고 “협력”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사회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 스토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통제보다는 보살핌을, 지배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 머리됨이 “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돌보는 힘”, “섬기는 힘”, “자아 성취를 촉진하는 힘”이다.

존 스토트는 “일과 고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분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일차적 책임”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면, 육체의 주인을 모범적으로 섬길 것이라고 스토트는 설명한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된 종-주인 간의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평등”, “정의”, “형제애”이다. 이 개념은 바울이 도입한 것으로, 에베소서의 주제 중 하나다.

존 스토트에 의하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그에 걸 맞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새로운 사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나 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의 무

엇보다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통해 이제 하나의 다국
가적, 다문화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자
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들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2.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글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도 로잔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존 스토틀트가 균형을 잡으려했던 하나의 결과물로 볼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이 책에서 스토틀트의 헌신 대상은 ‘성경’과 ‘세상’이었다. 그러
면서 그는 “한 세상에 굴복함으로써 다른 세상에서 밭을 빼려는 유혹에 애
써 저항”한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은 고대성에도 현
대성에도 마음대로 굴복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말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며, 성경의 계시를 오늘날의 긴급한 문제들에 적용하려는 한 사람
의 몸부림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책의 3부
“사회”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 8장 노동과 실업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존 스토틀트는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에 대해 높은 견해
를 고수해야 한다.

일의 목적.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 온다.” 일의 부정적인 영역. 그것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실업을 경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교회의 역할. 교회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 교인들이 일 가운데서 의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구직자들과 은퇴자들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일은 개인의 문제이며, 관계의 문제이다. 일터 안팎의 좋은 관계를 허용해야 한다. 일은 공동의 문제다. 일은 세계의 문제다. 세계화는 일의 세계에 대해 세 가지 주된 관심사를 제시한다. 근로자의 신분, 근로 조건의 질, 급여의 적절성이다. 이것을 살피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다.

2) 9장 비즈니스

“사업은 인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업 관계가 진정한 기독교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정의” 둘 다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 환경의 네 가지 측면은 현실성, 책임성, 이윤, 압력이다.

사업 관계 내에서의 상호성. 상호 섬김의 원리를 구현한다. 그 섬김은 상호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 “사리추구가 아닌 정의에 기초한 섬김”이다.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있으며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사랑과 정의가 둘 다 중요하다.” 웨인 앨더슨이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사랑”(나는 당신 편이다), “존엄”(사람이 중요하다), “존중”(비판 대신 감사)이다.

차별 철폐의 중요성. “사업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은 차별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등한 특권에 반대해야 하며, 특권이 아니라 공과를 따져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독교적 목표는 절대적인 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이 우리를 똑같이 자연적 은사나 영적 은사를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참여 확대의 필요성.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의사결정은 인간됨의 기본 요소”이다. 인간에게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공동체와 단체의 차이점은, “전자는 구성원들이 선택의 자유를 보유하는 반면, 후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빼앗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의 계약이 “인간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협의 없이 순종할 의무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인간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직장 문화를 교회는 이끌어야 한다. 심지어 임금 결정에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지침으로 삼을 만한 가치관은? 사랑과 정의이다. “사랑은 사업 공동체를 향한 표현”이나, “정의는 사업 구조에 대한 반응”이다. 정의는 “우리와 좀 더 마음이 통하거나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악과 강력한 대결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주요 두 가지 비판. 첫째는,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100대 경제 기구 중 50개가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이 권력을 발휘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은 공급자에 대한 것과 정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존 스토틀은 9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사업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사랑과 정의가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세계 자원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명령을 성취하며 많은 사람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3) 10장 인종 문제와 다문화 사회

이 장에서는 존 스토트는 노예 문제와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노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과 영국에 남아 있는 인종차별을 고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논한다. 그는 영국 내에서 40년 동안 지속된 인종적 긴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이민”, “인종 관계”, “제도적 인종차별”이다. 1993년 4월 22일에 백인 다섯 명이 스티븐 로렌스를 살해한 것이다. 스티븐 로렌스 사건 이후, 영국 성공회는 성공회의 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보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적 인종차별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인종차별은 개인적일 수도 제도적일 수도 있다. 그것은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하나는 사이비 과학적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순전한 편견이다.” 그러나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다양한 인종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고 더 넓은 하나 됨”으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인종적, 다민족적, 다문화적 특성을 보여야 한다.” 존 스토트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아주 실제적인 방침을 제시한다. “인종차별과 싸우는 일은 자녀 양육 방식부터 시작해야 한다.”

4) 11장 경제적 불균형

존 스토트는 이 장에서 특별히 “빈곤”에 대해서 다룬다. 북미와 유럽은 부유한 지역임에도, 빈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한다. 특별히 이곳에서 스토트는 빈곤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둘째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셋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는 이 세 종류를 둘로 다시 나눈다.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이다. 존 스토틀에 의하면, 전자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사회적 악”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시는 영적 미덕”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둘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 둘이 결합된 인간 공동체는 단 하나 뿐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시는 새롭고 구속받은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가난이라는 악을 근절하는 일과 영적 가난이라는 선을 개발하는 일 둘 다에 착수해야 한다.” 그는 “물리적인 가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한다. “가난해지는 것”, “부유한 채로 있는 것” 모두 적합하지 않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관대하고 자족하는 삶”이다.

로잔 언약서로 시작해서, 『에베소서 강해』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존 스토틀의 관심사는 하나이다. 개인의 복음이 아닌, 교회의 복음이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전도와 더불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V. 기독교 사회주의의 고찰

- 19세기 영국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운동”이나 “사회주의의 기독교화”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사회주의만을 대상을 삼을 것이다.

1. 역사적 배경

영국의 기독교 사회주의는 프랑스에서 영감을 이끌어냈다.²⁸⁾ 19세기 초기에 로버트 오언은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의해 공산적 사회주의자라는 평을 받았던 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오언의 출발점은 인간의 타고난 천성에 기대기보다는 먼저 사회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인간성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이었다.²⁹⁾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윤리였다.³⁰⁾ 그러나 이 운동은 영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단명하고 말았다. 이 후에 나온 것은 “차티스트운동”으로, 오언이 제창한 사회협약 원칙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중산층이 연대하여 평등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시민운동”이었다.³¹⁾ 그러나 이러한 운동과 요구들은 1839년에 이어 1842년에도 하원에 의해 거부되었다.³²⁾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혁명들이 잇달아 일어났던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다.

1848년은 영국에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이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모리스(Maurice)와 킹슬리였다. 그러나 그 운동을 시작하려는 생각은, 법정 변호사였던 러들로우에게서 나왔다.³³⁾ 1848년 1월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는 혁명 주동자들을 도우며, “조합 노동자들의 정신”에 열광하여 영국으로 돌아온다.³⁴⁾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회 운동도 그리스도교 원리들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28) G. D. H. Cole,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Vol. I, St Martin's Press, 1959, p.301.

29) 트리스트럼 헌트, 『앵겔스 평전』(이광일 옮김), 글항아리, 2010, 173쪽.

30) Robert Owen,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J. M. Dent & Sons Ltd, 1949, p.70.

29)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흥성사, 2011, 55쪽.

32) 트리스트럼 헌트, 『앵겔스 평전』(이광일 옮김), 글항아리, 2010, 179쪽.

33) G. D. H. Cole,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Vol. I, St Martin's Press, 1959, p.291.

34) 위의 책, 292쪽.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교회 원리들로서, 사람들을 경쟁 분파들로 나누는 대신 그들을 통합하는 것이었다.³⁵⁾ 이들은 오언이 지지했던 협동생활형태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신앙의 토대”(on a basis of religious belief)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2. 활동

첫 번째로 이들은 공장과 작업장에 짝 퍼져있던 소름끼칠 조건들의 무서운 공포를 직시한 것이다.³⁶⁾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산업체제에 퍼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기독교적인 정신”에 대항하였다. 영국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최초의 기독교 사회주의 잡지인 『국민을 위한 정치』(*Politics for the People*)을 창간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들을 영국에 적용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³⁷⁾

기독교 사회주의는 여전히 러들로우의 영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 혁명가인 뷔세가 1830년대 프랑스에서 시도했던 것들을 하려고 했다.³⁸⁾ 이들은 분명한 기독교적 토대 위에 서서 작은 노동조합을 세우려고 착수했으며, 부유한 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씨들을 이러한 작은 규모의 활동들을 통해서 뿌린다는 소망으로 재정적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와 국교회에 대한 그들의 관념에서는 “계급투쟁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급사이의 화해와 노동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 모임에는 한 명의 노동자도 없었고, 노동자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다. 토론할 목적에서만 기독교도들만의 모임에 참석했다.³⁹⁾

35) 위의 책, 292쪽.

36) 위의 책, 293쪽.

37) 위의 책, 294쪽.

38) 위의 책, 294쪽.

기독교 사회주의 복음에 대한 러들로우의 생각은 기대되어져 왔던 결과들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거나 도왔던 협동 생산 조합은 사라져버렸다.⁴⁰⁾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 활동을 “노동계급의 교육분야”로 돌려, 런던 노동자대학(London Working Men’s College)를 세웠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후에 의회에서 노동조합주의와 협동조합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으며 가장 급진주의자로 통했던 휴(Hughes)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모리스와 러들로우의 견해는 그들의 견해를 지지했던 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대중교육을 위한 활동, 공중보건 법률을 위한 운동에 실질적으로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이들의 한계는 “기독교적 토대”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국교회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신분과 노동자들을 동일한 신분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 더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것 같다.

영국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기독교적 신앙의 토대에 근거해서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일 것이다.⁴²⁾ 이러한 정신에 서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현하려는 예가 바로 이덕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일 것이다. 그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화를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⁴³⁾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서로 조화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그는 성경에서 여러 공동체를 이끌어 낸다. 중

39) 위의 책, 250쪽.

40) 위의 책, 299쪽.

41) 위의 책, 300-301쪽.

42)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홍성사, 2011, 62쪽.

43) 위의 책, 29쪽.

44)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러시아 지성사』(이경식 옮김), 종로서적, 1975, 162쪽. “레닌은 특히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싫어했다. 교회의 개혁파의 정신은, 그

교 중심 공동체인 만나 공동체(말씀 공동체), 안식년 평화 공동체, 희년 공동체, 에세네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오순절 공동체, 성찬 공동체 등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에 대한 해석이다.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얼마든지 공존과 조화가 가능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Ⅶ. 존 스토트의 ‘새로운 사회’와 기독교 사회주의의 연관성

1. 존 스토트의 사회 변혁에 대한 의견

존 스토트는 사회 변혁을 말하기 전에 기독교적 지성이 수용해야 하는 성경 역사의 4중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토대”이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다. 타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이로부터 우리의 모든 소외, 방향 감각 상실,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유래한다. 원죄는 우리가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이 재앙을 부르는 자기중심성으로 꼬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악은 뿌리 깊고 만연한 실재다. 구속은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하신 계획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며 우주를 쇄신하

의 의견에 의하면 ‘흑백인조’보다 해로운 것이었으며, 진보적이고 혁신된 그리스도교는 낡고 부패한 그리스도교보다 약질이라는 것이다. ‘소녀를 유혹하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법의를 입지 않은 사제, 종교의 비속함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제, 작은 선을 행할 것을 설교하는 총명하고 민주적인 사제보다는 위험이 훨씬 적다.’”

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성경의 4중 틀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 변혁의 가능성”이다. 스토트는 먼저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야 하는가?”⁴⁵⁾ 그는 앞에서 제시했던 4중 틀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개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롭고 동정심 많은 사회를 어느 정도는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사회 변혁은 가능하며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시킨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자기중심성이라는 왜곡된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를 건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취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나 유토피아적인 꿈은 실현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창조와 타락에 기초해서, 존 스토트는 사회 변혁과 관련해서 기독교인은 “태평스러운 낙관주의도 냉소주의자의 어두운 비관주의도 아닌 성경의 철저한 현실주의”를 설교한다.⁴⁶⁾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10절에서 그는 “섬김”과 “기다림” 원리를 이끌어낸다. 섬김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소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지름길과 절망에 빠져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2. 기독교 사회주의의 준거 : 형제애(philanthropism)

영국의 초기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리스와

45) 존 스토트,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정옥배 옮김), IVP, 2011, 76쪽.

46) 존 스토트,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정옥배 옮김), IVP, 2011, 78쪽.

킹슬리,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들러(Harry W. Laidler)는 “사회주의가 형제 됨의 정신보다 오히려 일련의 교리로 간주된다면” 이들은 현대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한다. 47) 다시 말해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은 “형제 됨의 정신”이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일련의 교리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시몽과 푸리에 그리고 로버트 오웬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공상적 혹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받았다. 48) 그 중에서 프랑스의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생시몽은 자신의 책 *Le nouveau christianisme*에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그 원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르쳤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형제애(neo-philantropie)이다. “모든 사람들은 형제처럼 여겨져야 한다. 그들을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한다.” 49) 셸리그만 교수도 사회주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말이, 인류를 하나의 법에 조건하에 있는 한 가족의 지체들로 보며, 노동자들을 동일한 가능성들을 부여받은 자들로,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들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자들로 간주하며, 조합과 보편적인 협동이라는 생각을 분배의 무정부상태와 경쟁의 단점과 대비시키며, 간단하게 말해서 인류를 한데 묶어주며 그들을 서로에 대한 의무들을 더욱 더 의식하게 만드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그들-기독교 사회주의자

47) Harry W. Laidler, *Social-Economic Movement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49), 723 “if socialism is regarded as a set of doctrines, rather than a spirit of brotherhood.”

48)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공산당 선언』(강유원 옮김), 이론과 실천, 2010, 54-58쪽.

49) Henri de Saint-Simon, *Le Nouveau Christianisme et les écrits sur la religion*, choisis et presentes par H. Desroche, (Paris: Edition du Seuil, 1969), 99, 101 “Tous les hommes doivent se regarder comme des freres, ils doivent s'aimer et se secourir les uns les autres.”

들-은 사실상 가장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이다.⁵⁰⁾

사람들을 한 가족의 구성원들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주의 중에서도 가장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존 스토트는 새로운 사회를 말하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독교 사회주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공상적인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닌, 성경이나 기독교적 토대나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독교 사회주의는 존 스토트가 로잔 언약과 『에베소서 강해』,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그리고 있는 기독교와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인다.

VII. 결론

존 스토트의 『에베소서 강해』(Message of Ephesians)에 나오는 새로운 사회상과 그 사회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기준들은 분명히 로잔 언약서, 특히 5, 6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에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를 강해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 낸다. 그 새로운 사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 그 사회는 세속 사회와 다른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두 가지이다. 그것은 하나 됨과 순결함이다. 성경을 해석하여 현실에 적용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50) Harry W. Laidler, *Social-Economic Movements*, Thomas Y. Crowell Company, 1949, p.723, 재인용.

그러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적용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세상의 문제들을 비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다보니 더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혹자는 존 스토트를 구약 예언자들의 세계 변혁적인 특성을 결여하고 있는 온건한 복음주의자로 이해하나, 그는 이 저작에서 이러한 판단을 무색하게 할 만큼 예언자들의 외침을 공유한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를 주창하는 자들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에 대한 고민의 열정은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지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체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월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실천적인 입장에 선다면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 이식하기 위한 체제적, 방법론적 모델에 대한 고민이 취약했다는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약점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한계와 실패를 인식하고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초기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역시 성경 진리와 관계없는 사회 운동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 기초해서 진행될 사회를 꿈꿨다는 것이다. 양자 간 방법은 다르지만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기초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 스토트의 실천적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형제애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51) 데이비드 오렐, 『경제학 혁명』(김원기 옮김), 행정비, 2011. 주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신 고전주의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원리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책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홍성사, 2011.
- 레아나르도 보프,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김수복 옮김), 분도출판사, 1993.
- 트리스트럼 헌트, 『엔겔스 평전』(이광일 옮김), 글항아리, 2010.
- 칼 마르크스, 『자본론 I』(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8.
-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공산당 선언』(강유원 옮김), 이론과 실천, 2010.
- 데이비드 오렐, 『경제학 혁명』(김원기 옮김), 행성비, 2011.
- 로저 스티어, 『존 스토트의 생애』(이지혜 옮김), IVP, 2009.
- 존 스토트, 『에베소서 강해』(정옥배 옮김), IVP, 2007.
- _____,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정옥배 옮김), IVP, 2011.
- G. D. H. Cole,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Vol. I. St Martin's Press, 1959.
- Harry W. Laidler, *Social-Economic Movements*, Thomas Y. Crowell Company, 1949.
- Robert Owen,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J. M. Dent & Sons Ltd, 1949.
- Henri de Saint-Simon, *Le Nouveau Christianisme et les ecrits sur la religion*, choisis et presentes par H. Desroche, Edition du Seuil, 1969.
-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edited. by Babara et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Martini, Bruce M. Metzger,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2. 정기간행물

- 김회권, “존 스토트, 하용조, 복음주의의 미래,” 『복음과 상황』, 2011, 9, No. 251.
- 손동식, “복음주의의 사도, 존 스토트의 삶과 설교 세계,” 『목회와 신학』, 2011, 09.
- 이만열, “존 스토트에게 진 빛,” 『복음과 상황』, 2011, 09, No. 251.

3.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sa-online.org/about/lausanne.html>. 로잔 언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new Society of God in “The message of Ephesians” Written by John Stott and Christian socialism

Han, Kyu-Seung

The new society and the new frame of references of “The message of Ephesians” written by John Stott is obviously based on the Lausanne Covenant, especially Article 5 and 6. It contains the balance between the evangelism and the 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this concept, John Stott draws a new mankind, a new society, and a heavenly community through the works of Jesus Christ in “the message of Ephesians”.

The new society has two characteristics. One is that the Jews and the Gentiles are God’s family without any differences, and the other is that the world is a holy nation unlike secular society. Also the new society requires unity and purity. In the writings by John Stott, especially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he presents more concrete and radical alternatives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the Bible. Someone can recognize John Stott as a moderate evangelist who lacks in the trans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ld Testament’s prophets, but in

fact he stands at the same viewpoint with the prophets.

John Stott seems not to struggle intensively about other social system just not as Christian socialists, It is not because of his ignorance or indifference but because of his belief of overwhelmed God's Words. But there is not so much differences between the contentions of the Christian socialists and the new mankind and the new social system which John Stott preaches with God's words.

As a Christian, we have a mission to establish a model of 'a new society' beyond the limitations of praxis of John Stott and the doctrinal risks of christian socialism.

Key words : John Stott, Lausanne Covenant, evangelism, 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a new mankind, a new society, Christian socialism